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자비를 보이시는 구주.(요한복음 8:1~11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용서의 힘

“오소서,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으며,
 처음 친구는 결국 다시 친구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9년 여름, 선지자는 일리노이 주에서 미시시피 강 유역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있던 장소를 나부라고 불렀다. 그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로서, “아름다운 위치, 혹은 장소를 나타내며 아울러 안식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¹ 선지자의 지시 하에, 성도들은 커머스 마을을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시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오두막과 천막을 개척자 통나무집으로 바꾸었고, 많은 목조 가옥과 상당수의 벽돌집도 짓기 시작했다. 그들은 넓은 땅에 과실수와 가로수 그리고 포도나무와 관목들을 심었다. 성도들은 아름다운 나무가 미주리 주에서 겪은 박해를 잊게 해 줄 수 있는 평화로운 피난처가 되기를 소망했다.

이 건설 기간 동안, 조셉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이 범한 잘못을 회개하도록 해주면서, 그의 자비로운 기질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는 한 가지 경험을 했다. 다니엘 타일러는 그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있는 동안 교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한 사람이 오히려, 학질, 고열을 앓게 되었다. 그의 정신이 몸과 마찬가지로 약해져 있는 동안, 불만을 품은 무리들이 그의 마음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어 성도들을 떠나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설득했다. 그는 선지자를 반대하는 증언을 했다. 성도들이 커머스에 정착하는 동안, 병에서 회복한 그는 미주리 주에서 일리노이 주 퀸시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가족이 나부로 가기 위한 돈을 벌고 상처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조셉이 자신을 용서하여 그 우리로 되돌아오도록 허락할 경우에 그에게 줄 선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러 갔다. … 그는 자신이 아무데서도 구원 받을 수 없으며 자신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슬픈 마음과 낙담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그 사람이] 오고 있는 동안 주님은 조셉 형제에게 그가 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지자는 창 밖을 내다보고 그가 길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돌아서서 문을 열자마자 선지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으며 마당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외쳤다. ‘오 형제님, 형제님을 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의 목을 얼싸안았고 둘 다 어린 아이들처럼 울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떨어져 나갔던 그 사람은 침례의 문을 통해 다시 교회에 들어왔으며, 신권을 받았고, 여러 번 중요한 선교 사업을 했으며, 성도들과 더불어 시온에 모여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²

제일회장단 보좌로 봉사한 조지 큐 캐논은 조셉 스미스가 지닌 용서하는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덧붙였다. “진리에 대한 그의 확고한 옹호,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굽힐 줄 모르는 애착과 더불어, 조셉은 연약하고 실수하는 자들에게 늘 자비로웠습니다. 1835년 여름에, 그는 커틀랜드와 그 부근에서 열린 평의회와 모임들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교회 회장단을 거역하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심리를 받던 몇몇 회원들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제비에 뽑혀 피고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기소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함과 공의로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³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우리는 자비의 원리를 행사하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용서해야 한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가장 기쁜 장면 중 하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며, 그 후에 구주의 송고하고 완전한 모범에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죄인을] 용서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⁴

“항상 자비의 원리를 실천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형제, 그리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들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자비로우실 것입니다.”⁵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적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밖의 원수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로마서 12:19 참조) 모든 성임된 회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자비를 찾게 되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누가복음 15:7 참조)⁶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는 선지자의 다음 말을 보고했다.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자비를 지녀야 합니다. 그는 죄악을 밝혀 내는 데 자신이 도구로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악마의 정죄를 받게 하며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우울하며 슬프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은 동료와 같은 존재들이며, 우리는 한때 그들을 사랑했으며, 그들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아직 그들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21~22 참조) 아마도 우리는 그들을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변화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날입니다.”⁷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이 사소한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일일이 의의를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하며 작은 일을 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⁸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윌라드 리차즈는 이렇게 보고했다. “조셉은 그와 하늘의 관계는 온전하며, 그는 어느 누구와도 원수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조셉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마태복음 6:12, 14 참조) 이는 제가 모든 사람을 거리낌없이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고 그것을 키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친구처럼 사랑해야 합니다.”⁹

용서는 화합의 느낌을 회복시켜 준다.

“더 큰 친목이 없다는 것이 저를 슬프게 합니다. 한 회원이 고통을 당하면 모든 회원이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화합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연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다 하여 독선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 [죄인이] 회개하면, 우리는 그들을 데려다가 친절로써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영향으로써 그들을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손을 잡고 자비로 돌보아 주는 것이라 여깁니다.”¹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한 그룹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형제 여러분,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저의 형제들과 온 세상 사람들의 실수와 결함, 약함, 그리고 사악함을 용서하고 감당하는 것이 저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신임과 사랑은 줄어들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견뎌야 할 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꾸밈음을 받게 될 때, 화내지 마십시오 … 여러분과 제가 얼굴을 마주보며 만날 때,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이해되고, 완전한 사랑이 넘치며, 우리를 하나로 묶은 성스러운 성약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기대합니다.”¹¹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 그리고 십이사도들과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저는 가끔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큼 거친 말을 했습니다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용서를 빕니다. 이는 제가 주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의 안에서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바다와 땅에서, 광야나 거처 형제들, 혹은 폭도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서든 모든 반대의 폭우, 폭풍, 천둥 번개를 기꺼이 막아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과 저를 떼어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로마서 8:38~39 참조)

“이제 저는 여러분을 포함하는 어떤 보고도 듣거나 믿지 않을 것이며, 하늘 아래서 어떤 증언을 듣더라도, 제가 직접 여러분과 대면하여 보고 그것이 틀림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성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제 말을 신뢰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 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¹²

1835년 가을, 선지자의 동생인 윌리엄이 선지자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노하게 되었으며, 선지자를 대할 때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선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동으로 선지자는 서글픔을 느꼈으며, 윌리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동생아, 나는 네가 겸손하기를 바란다. 나는 주저없이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너는 나의 뜻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고 있고,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며, 어떤 홍수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으며 넘어뜨리지도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너는 내가 가르친 교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네가 잘못했을 때, 내가 너를 훈계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러한 자유를 항상 누리고 있으며 너도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나는 내 생득권으로 인해 너를 훈계할 수 있다. 너에게도 그렇게 할 특권을 허락한다. 이는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형제요 친구인 너에게서 꾸짖음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 바라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좋지 않은 감정을 없애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고 지나간 일은 영원히 잊혀지기를 바란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권능과 보호와 왕관 앞에 아버지, 어머니, 앨빈, 하이럼, 소프로니아, 새뮤얼, 캐더린, 칼로스, 루시, 성도들, 그리고 평화 안에서 성결케 된 모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우리 둘이 당신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바라옵니다. 이것이 네 형의 기도이다.”¹³

1836년 1월 1일, 선지자는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지난 해를 돌이켜볼 때 내 마음을 채우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머리 위에 부어진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슴은 아버지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 나는 이날,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고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는 것과, 다가오는 한 해와 그 다음 해들이 몇 년이 되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보낼 것을 다짐한다. …

“동생 윌리엄과 형 하이럼, 그리고 숙부 존 스미스가 우리 집에 찾아왔으며, 우리는 아버지와 마틴 해리스 장로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기도로 우리의 접견을 시작하신 후, 아버지로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애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다.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강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했으며,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동생 윌리엄은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를 비방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나도 잘못했으므로 그의 용서를 구했다.

“고백과 용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형제들 앞에서, 이후로는 매사에 서로를 의로움으로 일으켜 세우고, 서로에 대한 나쁜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진실한 형제처럼, 서로 왕래하고, 불만이 있을 경우 온유한 정신으로 화해하고, 그로써 우리의 행복, 가족의 행복, 그리고 결국에는 모두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을 맺었다. 그런 다음 나의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서기를 방으로 불러들였으며,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서약을 그들에게 되풀이했다. 감사가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웠으며,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기도로 우리의 접견을 마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순간은 참으로 환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다.”¹⁴

**회개하는 자에게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자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유”로 인도할 수 있다.**

1838년 말, 한때 신임 받는 교회 회원이었던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선지자와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그들을 미주리 주에 있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는 성도들과 다시 완전한 우정을 누리게 된 후 자신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준 선지자에 대해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장)

는 감옥에 투옥시킨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1840년 6월, 펠프스 형제는 조셉 스미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다. 선지자 조셉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썼다. “저는 형제님이 지난 달 29일자로 보낸 편지에 대해 몇 자 적으면서 느낀 것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과 동시에 저에게 주어진 특권에 기뻐한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님은 리그돈 장로와 하이럼 형제, 그리고 제가 형제님의 편지를 읽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의 결심을 확인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아끼는 마음과 연민으로 녹아 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승인하실, 계시된 진리와 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형제님의 경우를 처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겸손하며 통회하는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래 참으심과 인내와 자비로 역사하시므로, 저도 그 모범을 따르고 그 원리를 소중히 간직하여 제 동료를 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형제님의 행동으로 우리가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을 때, 인간으로서는 마시기 힘든 쓴 잔이 이미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은 우리와 함께 종종 좋은 권고를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매 순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형제님이 원수였었다면 견디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시편 55:12~14 참조) ‘그대가 우리의 적이 되던 날, 이방인들이 강제로 포로를 끌어 갔던 날, 외인들이 들어와 [파웨스트]의 운명을 좌우하던 날, 그대마저 그들 중의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형제가 이방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고난의 날에 오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바댜 1:11~12 참조)

“그러나 고통의 쓴 잔은 비워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출되었으며, 형제님이 원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자유를 되찾아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로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은 형제님의 특권입니다. 근면과 겸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 형제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형제님 자신을 맡기십시오.

“형제님의 고백이 참되고 형제님의 회개가 진실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저는 다시 한 번 형제님에게 우정의 오른손을 내밀게 되어 기쁘며, 제게는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의 기쁨이 넘칩니다.

“지난 주일에 형제님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으며, 더블류 더블류 펠프스가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오소서, 사랑하는 형제여, 전쟁은 끝났으며, 처음 친구는 결국 다시 친구입니다.’”¹⁵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제언

본 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제언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ii~xii쪽을 참조한다.

- 본 장에는 조셉 스미스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391~392, 395~396 및 396~398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복습한다. 이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가? 좀 더 용서하는 정신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393쪽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짧고 현명한 말씀이 수록되어 있다. “서로 참고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비로우면 자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하며 작은 일을 묵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각각의 말씀들로부터 무엇을 얻게 되는가?
- 393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에서, 친절과 온화함의 영향에 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복습한다. 여러분은 이 권고가 왜 참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이 원리들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 394쪽 하단에서 시작하는 단락을 복습한다. 우리는 이 권고에 따를 때 어떤 문제들을 피할 수 있는가? 왜 이 권고는 때때로 따르기가 힘든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믿고자 하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는 노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고(398쪽) “구주의 숭고하고 완전한 모범에 따라” 생활하고자 하는 소망을 말했다.(392쪽)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하면서 어떤 특성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관련 성구: 시편 86:5; 마태복음 18:21~35; 니파이전서 7:16~21; 모사이야서 26:29~31; 교리와 성약 64:9~11

주

1. *History of the Church*, 4:268;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에 있는 그의 보좌들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1년 1월 15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1년 1월 15일, 273~274쪽.
2. Daniel Tyler,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에서, *Juvenile Instructor*, 1892년 8월 15일, 491쪽; 현대화된 구두법; 단락 구분 변경.
3. George Q. Cann, *The Life of Joseph Smith, the Prophet*(1888년), 190~191쪽.
4. *History of the Church*, 6:245; "A Friendly Hint to Missouri"에서, 조셉 스미스의 지시 하에 작성된 기사, 1844년 3월 8일, 일리노이 주 나부, *Times and Seasons*에 게재됨, 1844년 3월 15일, 473쪽.
5. *History of the Church*, 3:383; 1839년 7월 2일, 아이오와 주 몬트로스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포드 우드럽과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6. *History of the Church*, 2:230, footnote; "To the Saints Scattered Abroad"에서 발췌, *Messenger and Advocate*, 1835년 6월, 138쪽.
7. *History of the Church*, 5:19~20; 원문에는 "yet"가 괄호 안에 있음; 단락 구분 변경; 1842년 5월 26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8. *History of the Church*, 5:23; 1842년 6월 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9. *History of the Church*, 5:498; 현대화된 구두법; 1843년 7월 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윌라드 리차즈가 보고함.
10. *History of the Church*, 5:23~24; 1842년 6월 9일,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가 전한 설교에서 발췌; 엘리자 알 스노우가 보고함.
11. 조셉 스미스가 에드워드 파트리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1834년 3월 30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Oliver Cowdery Letterbook, 34~35쪽, 캘리포니아 주 샌마리노 헌팅턴 도서관; 교회 기록 보관소에 있는 사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2. *History of the Church*, 2:374; 단락 구분 변경; 1836년 1월 16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평의회 회의록에서; 워렌 패리쉬가 보고함.
13. *History of the Church*, 2:343;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스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35년 12월 18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4. *History of the Church*, 2:352~354;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의 일지에서 발췌, 1836년 1월 1일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
15. *History of the Church*, 4:162~164; 원문에는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째 괄호 안의 말씀이 있음; 현대화된 구두법 및 대문자 표기법; 단락 구분 변경; 조셉 스미스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췌, 1840년 7월 22일, 일리노이 주 나부.